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0486-01

朝鮮王朝實錄鈔

漢城府資料集 28

宣祖 32年(1599) ~ 宣祖 35年(1602)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朝鮮王朝實錄鈔

漢城府資料集28

宣祖 32年(1599) ~ 宣祖 35年(1602)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일러두기

1. 본 자료집에는 민족문화추진회에서 번역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중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에서 宣祖 32年(1599) 정월~宣祖 35年(1602) 12월까지의 서울관계 기사를 발췌·수록하였다. 수록된 기사는 서울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수정하기도 하였다.
2. 자료집 뒤에 실록 원문을 수록하였다. 원문 발췌 자료로 표점이 없는 『조선왕조실록』 영인본을 사용하였다.
3. 발췌는 서울의 명칭(京都, 京師, 漢京, 漢城, 漢陽, 都邑, 京中, 京城, 新都 등), 서울의 행정구역, 한성부 관직(漢城尹, 左尹, 右尹, 少尹, 府尹 등), 한성부의 건축물(宮闕, 官衙, 宗廟, 社稷, 陵, 門, 寺, 亭, 齋 등), 서울 관련 용어가 포함된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서울과 관계된 정책, 사건, 생활기사 등도 모두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4. 왕이나 왕실의 반복되는 일상사 및 왕족의 개인적인 행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록하지 않았다.
5. 국가 전반에 관계된 사항이라도 서울에 영향을 미쳤던 법 제정과 개정, 사건, 인물 등의 기사는 수록하였다.
6. 현재 서울에 편입된 지역의 행정, 사건, 인물 기사는 수록하였다.
7. 각 기사의 번역문과 원문에는 수록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8. 각 기사는 실록 출전과 해당 연·월·일(간지)을 명기한 후, 원전의 권수와 쪽수를 표기하였고, 이어서 제목을 달았다. 기사의 제목은 서울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설정하였다.
9. 인명, 지명, 명칭 등의 경우 ()안에 한자를 표기하였다. 한자는 동일 기사 내에서는 반복하여 표기하지 않았으나, 기사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각각 표기하였다. 풀이를 의미하는 한자는 [] 로 표시하였다.

10. 번역문에 포함된 각주는 재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자가 주(註)를 추가하기도 있다.
11. 반복하여 등장하는 용어는 번역문의 마지막에 별도의 용어설명을 두어 따로 해설하였고, 본문의 해당 단어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용어설명을 위하여 『한국고전용어사전』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역주경국대전』 및 기타 연구서 등을 참조하였으나 참고서적을 따로 명기하지 않았다.

목 차

1603. 선조실록 권108 선조 32년 정월 1일(임오) 【23집 552면】 37
 형군문과 만경리의 아문을 각각 방문하여 새해 인사를 나누다
1604. 선조실록 권108 선조 32년 정월 6일(정해) 【23집 554면】 39
 용산에 주둔하는 조여매의 관소에 가서 새해 인사를 나누다
1605. 선조실록 권108 선조 32년 정월 9일(경인) 【23집 555면】 42
 한강에서 마제독을 맞이하여 위로하고, 명나라 군대의 주둔을 요청하다
1606. 선조실록 권108 선조 32년 정월 12일(계사) 【23집 557면】 43
 한강으로 나아가 포정 양조령을 맞이하여 위로하다
1607. 선조실록 권108 선조 32년 정월 13일(갑오) 【23집 558면】 44
 명나라 관원 정찬획을 대우해 달라는 경리의 요청을 받다
1608. 선조실록 권108 선조 32년 정월 21일(임인) 【23집 562면】 45
 명나라 급사 서관관이 방문을 받고 서울의 풍수지리 등에 대해 이야기하다
1609. 선조실록 권108 선조 32년 정월 21일(임인) 【23집 562면】 47
 허국위가 개첩을 보내 명으로 보내는 문서에 석본병과 양경리를 변호하는 내용을 담아달라고 요청하다
1610. 선조실록 권108 선조 32년 정월 28일(기유) 【23집 564면】 49
 모화관으로 가서 낭중 동한유를 맞이하여 위로하다
1611. 선조실록 권109 선조 32년 2월 2일(임자) 【23집 567면】 49
 별전에서 대신들을 인견하고 도성의 방어문제와 명나라 장수를 대우하는 방안 등을 논하다
1612. 선조실록 권109 선조 32년 2월 5일(을묘) 【23집 571면】 63
 호조판서 이광정이 서울 창고에 비축된 쌀이 부족함에 대해 아뢰다
1613. 선조실록 권109 선조 32년 2월 17일(정묘) 【23집 578면】 64
 명나라 장수들이 공적을 기념하는 동주를 세워달라고 재촉하다

1614. 선조실록 권109 선조 32년 2월 18일(무진) 【23집 578면】 64
 임금이 서울에 머물고 있는 명나라 장수들을 일일이 방문하는
 거동에 대해 중흥의 업적이라는 사평을 달다
1615. 선조실록 권109 선조 32년 2월 20일(경오) 【23집 581면】 65
 사간원에서 대간을 외방에 차임하지 말 것과 백성을 동원하여 캐낸
 인삼을 서울에서 판매한 인제현감을 파직할 것 등을 건의하다
1616. 선조실록 권109 선조 32년 2월 21일(신미) 【23집 582면】 66
 모화관에서 낭중 동한유를 전송하면서 서울의 군량 사정 등에 대해
 걱정을 나누다
1617. 선조실록 권109 선조 32년 2월 25일(을해) 【23집 583면】 68
 한성부 등에서 명나라 도망병을 색출하고 숨겨준 사람을 적발하여
 엄벌하기로 하다
1618. 선조실록 권110 선조 32년 3월 1일(경진) 【23집 587면】 68
 홍이상을 한성부좌윤으로 임명하다
1619. 선조실록 권110 선조 32년 3월 3일(임오) 【23집 587면】 69
 사헌부의 건의로 서울로 들어오는 우마를 징발한 경기감사를
 추고하기로 하다
1620. 선조실록 권110 선조 32년 3월 4일(계미) 【23집 587면】 70
 이광정을 한성부판윤으로 임명하다
1621. 선조실록 권110 선조 32년 3월 10일(기축) 【23집 589면】 70
 이조에서 음자제의 취재에 서울의 응시자가 부족할 것을 우려하자
 생원·진사로 결원을 매우도록 지시하다
1622. 선조실록 권110 선조 32년 3월 14일(계사) 【23집 590면】 71
 민준을 한성좌윤으로 임명하다
1623. 선조실록 권111 선조 32년 4월 8일(정사) 【23집 594면】 71
 남별궁에서 형군문을 접견하다
1624. 선조실록 권111 선조 32년 4월 8일(정사) 【23집 594면】 72
 사간원에서 속오군의 부담 경감과 명 군대 지공을 이유로 지나치게
 징렴하는데 대한 조처를 건의하다

1625. 선조실록 권111 선조 32년 4월 8일(정사) 【23집 595면】 74
 시간원에서 서울 백성에 대한 가혹한 우마 징발 등 현안에 대한
 시정을 건의하다
1626. 선조실록 권111 선조 32년 4월 11일(경신) 【23집 596면】 77
 대신을 불러 세자에게 전위한다는 내용의 어첩을 명에 보내겠다고
 하면서 의중을 떠보다
1627. 선조실록 권111 선조 32년 4월 15일(갑자) 【23집 598면】 79
 홍제원에 형군문을 전별하러 가서 기다리는 동안 대신들이 전위
 의사를 담은 어첩 전달을 중단하라고 요청하다
1628. 선조실록 권111 선조 32년 4월 15일(갑자) 【23집 598면】 80
 강향이 왜적에 포로로 잡혀있으면서 견문한 내용을 상소하다
1629. 선조실록 권111 선조 32년 4월 16일(을축) 【23집 599면】 86
 서울 각 아문에 조례들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다
1630. 선조실록 권111 선조 32년 4월 23일(임신) 【23집 604면】 86
 장운익을 한성부판윤에 임명하다
1631. 선조실록 권111 선조 32년 4월 25일(갑술) 【23집 605면】 87
 지평 남탁이 명나라 군대의 주둔으로 서울 백성이 곤핍하니 세자의
 수행원을 줄이자고 건의하다
1632. 선조실록 권111 선조 32년 4월 27일(병자) 【23집 605면】 87
 왕비의 귀경 일자를 고지하도록 하다
1633. 선조실록 권111 선조 32년 4월 29일(무인) 【23집 606면】 87
 관왕묘가 남대문 밖에 이미 설립되어 있으니 동대문에 세우도록
 명나라 장수를 설득하라고 지시하다
1634. 선조실록 권112 선조 32년 윤4월 1일(기묘) 【23집 607면】 88
 가뭄으로 한강·삼각산 등에서 기우제를 지내기로 하다
1635. 선조실록 권112 선조 32년 윤4월 3일(신사) 【23집 607면】 89
 서울에서 명군의 갖은 행패에도 달리 조처할 방안이 없다

1636. 선조실록 권112 선조 32년 윤4월 6일(갑신) 【23집 609면】 90
이노를 한성부우윤으로 임명하다
1637. 선조실록 권112 선조 32년 윤4월 11일(기축) 【23집 609면】 90
낭중 가유약의 방문을 받고 남산이 민동산이 된 경위 등을
이야기하다
1638. 선조실록 권112 선조 32년 윤4월 12일(경인) 【23집 610면】 92
남탁이 서울 백성을 명군의 갖은 행패로부터 보호할 조처를 건의하다
1639. 선조실록 권112 선조 32년 윤4월 13일(신묘) 【23집 611면】 93
윤승길을 한성부우윤으로 임명하다
1640. 선조실록 권112 선조 32년 윤4월 25일(계묘) 【23집 614면】 93
정유재란으로 피난했던 왕비가 수안으로부터 서울로 돌아오다
1641. 선조실록 권113 선조 32년 5월 3일(경술) 【23집 616면】 93
관악산 등지에서 기우제를 지내기로 하다
1642. 선조실록 권113 선조 32년 5월 14일(신유) 【23집 619면】 94
큰 비로 오랜 가뭄을 해결하다
1643. 선조실록 권113 선조 32년 5월 22일(기사) 【23집 622면】 94
서울 창고에 명군에 제공할 쌀이 고갈되자 정부의 잡곡과 민간의
쌀을 교환하여 충당하기로 하다
1644. 선조실록 권113 선조 32년 5월 23일(경오) 【23집 623면】 95
서울에 몰려드는 선비를 모아 성균관에서 강론하기 위해 대사성을
서둘러 임명하기로 하다
1645. 선조실록 권113 선조 32년 5월 26일(계유) 【23집 625면】 96
명나라 관원을 상대하여 서울 등지에서 근무한 접반사 및 접반관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다
1646. 선조실록 권113 선조 32년 5월 27일(갑술) 【23집 625면】 97
유영길을 한성부우윤으로 임명하다
1647. 선조실록 권114 선조 32년 6월 4일(신사) 【23집 628면】 97
신유를 한성부서윤으로 임명하다

1648. 선조실록 권114 선조 32년 6월 6일(계미) 【23집 628면】 98
별시초시를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실시하기로 하다
1649. 선조실록 권114 선조 32년 6월 7일(갑신) 【23집 629면】 99
경장에서 민간 선박에 양곡을 선적하여 운반하는 일을 감독하기
위해 호조낭청을 파견하기로 하다
1650. 선조실록 권115 선조 32년 7월 3일(경술) 【23집 641면】 101
이호의의 건의로 관왕묘의 공사를 중단하기로 하다
1651. 선조실록 권115 선조 32년 7월 8일(을묘) 【23집 643면】 101
정원의 건의로 보현사에 보관 중인 사초를 서울로 이송하기로 하다
1652. 선조실록 권115 선조 32년 7월 11일(무오) 【23집 644면】 102
역대 임금의 어용 및 실록을 서울로 옮겨오는 일을 보류하다
1653. 선조실록 권115 선조 32년 7월 12일(기미) 【23집 644면】 103
이충원을 한성부판윤으로 임명하다
1654. 선조실록 권115 선조 32년 7월 14일(신유) 【23집 645면】 103
윤근수가 관묘 건립 장소를 동대문 밖으로 정했음을 아뢰다
1655. 선조실록 권115 선조 32년 7월 14일(신유) 【23집 645면】 105
윤근수가 박상의의 술법을 두둔하며 동대문 밖에 관묘 건립 하는
일에 찬성하다
1656. 선조실록 권115 선조 32년 7월 20일(정묘) 【23집 648면】 106
김신원이 서울 주둔 명 관원의 지공 부담으로 경기감사를
사임하였으나 반려하다
1657. 선조실록 권115 선조 32년 7월 22일(기사) 【23집 649면】 106
명나라 제독 이승훈을 영접하기 위해 모화관에 거동하다
1658. 선조실록 권115 선조 32년 7월 22일(기사) 【23집 649면】 107
제독 이승훈을 모화관에서 맞이하여 명군의 행패를 단속하겠다는
다짐을 듣다
1659. 선조실록 권115 선조 32년 7월 26일(계유) 【23집 652면】 108
북벌로 출병하는 서울의 포수와 외방 무사의 출발 시기를 조정하다

1660. 선조실록 권115 선조 32년 7월 27일(갑술) 【23집 653면】 109
 서울 및 지방의 병력을 지휘하여 북벌 출병하는 일을 좌의정 이덕형 등에게 의논하게 하다
1661. 선조실록 권115 선조 32년 7월 29일(병자) 【23집 655면】 110
 사헌부에서 담험관으로 경관 파견을 중지하는 등 전란 후 민심의 수습방안을 아뢰다
1662. 선조실록 권115 선조 32년 7월 29일(병자) 【23집 655면】 111
 윤두수 탄핵 상소를 계기로 서울 출신 최영경의 억울한 죽음과 성품에 대해 사평하다
1663. 선조실록 권116 선조 32년 8월 4일(경진) 【23집 659면】 114
 이정구가 상황을 논하여 여진을 북벌할 처지가 못 됨을 지적하니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다
1664. 선조실록 권116 선조 32년 8월 5일(신사) 【23집 660면】 118
 사간원에서 인심 수습을 위해 수령의 파직과 이조 관원의 처벌을 건의하였으나 재검토를 지시하다
1665. 선조실록 권116 선조 32년 8월 9일(을유) 【23집 661면】 119
 황제의 조서를 가지고 온 재조관 두양신을 모화관에서 영접하다
1666. 선조실록 권116 선조 32년 8월 12일(무자) 【23집 662면】 119
 왜 사신이 서울에 올라온 일을 계기로 왜적을 막을 방안을 논의하게 하다
1667. 선조실록 권116 선조 32년 8월 16일(임진) 【23집 663면】 120
 비변사에서 왜적 방어에 관한 왕의 비망기에 대해 답변을 아뢰다
1668. 선조실록 권116 선조 32년 8월 18일(갑오) 【23집 665면】 122
 유격 강양동과 회동하여 서울로 들어 온 왜 사신의 처리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다
1669. 선조실록 권116 선조 32년 8월 21일(정유) 【23집 666면】 123
 이현국 등이 경리 만세덕에게 정문을 보내 세자 책봉 문제를 청탁하다

1670. 선조실록 권116 선조 32년 8월 26일(임인) 【23집 668면】 126
서울과 지방의 관원이 갖추어야 하는 관복의 준비가 부담스러워
무관의 융복착용을 허락하다
1671. 선조실록 권116 선조 32년 8월 26일(임인) 【23집 669면】 127
사헌부에서 전란후 관리들의 태만하고 회피하는 직무 수행
분위기를 지적하다
1672. 선조실록 권116 선조 32년 8월 27일(계묘) 【23집 669면】 128
임금이 명 제독 이승훈을 방문하여 주찬을 대접받고 군량의 조달
방안에 대해 논의하다
1673. 선조실록 권116 선조 32년 8월 28일(갑진) 【23집 670면】 130
서울에 주둔하는 명 군대에 대한 군량 조달을 위해 민간의 쌀을
강제 징수하다
1674. 선조실록 권116 선조 32년 8월 28일(갑진) 【23집 670면】 131
서울 주둔 명군의 군량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주민과 같이
지방민의 쌀도 징발하기로 하다
1675. 선조실록 권117 선조 32년 9월 2일(무신) 【23집 673면】 133
서울 창고의 쌀 고갈을 우려하는 군자감 보고를 무시하고 조치하지
않은 호조 관원을 추고하게 하다
1676. 선조실록 권117 선조 32년 9월 7일(계축) 【23집 675면】 134
호조에서 명군에 제공하기 위해 서울의 쌀 비축을 확보하는 방안을
보고하다
1677. 선조실록 권117 선조 32년 9월 19일(을축) 【23집 681면】 135
명 장수의 아문과 매매할 인삼을 조달하는 문제를 논하다
1678. 선조실록 권117 선조 32년 9월 26일(임신) 【23집 683면】 137
비변사가 군문 형개의 생사당에 대한 제사와 동주·석비 건립
문제에 대해 아뢰다
1679. 선조실록 권118 선조 32년 10월 2일(무인) 【23집 685면】 137
서울의 치안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포도대장의 추고를 결정하다

1680. 선조실록 권118 선조 32년 10월 8일(갑신) 【23집 688면】 138
서울 출신의 낭관 정영국이 상소를 올려 자신이 탄핵된 것이
대간의 편파적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다
1681. 선조실록 권118 선조 32년 10월 9일(을유) 【23집 689면】 141
사간 송일이 정영국의 상소와 관련하여 사직을 청하다
1682. 선조실록 권118 선조 32년 10월 9일(을유) 【23집 689면】 142
부제학 노직 등이 정영국 문제로 언관을 체임할 수 없다고
건의하여 윤허 받다
1683. 선조실록 권118 선조 32년 10월 10일(병술) 【23집 690면】 143
임금이 정영국 사안으로 의견이 분분한 조정의 분위기를 개탄하다
1684. 선조실록 권118 선조 32년 10월 11일(정해) 【23집 691면】 144
유격 모국기를 만나고 낙참장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청하다
1685. 선조실록 권118 선조 32년 10월 11일(정해) 【23집 691면】 145
유격 모국기의 방문을 받아 회례하고 경리 양호의 소식을 듣다
1686. 선조실록 권118 선조 32년 10월 13일(기축) 【23집 693면】 145
사은사 신식이 명 조정에 돌아간 조선 참전 관원의 상황을
보고하다
1687. 선조실록 권118 선조 32년 10월 19일(을미) 【23집 696면】 146
한성판윤 이충원이 의빈단자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일로 죄를
청하다
1688. 선조실록 권118 선조 32년 10월 29일(을사) 【23집 699면】 146
서울의 시전 등에서 횡포를 부리는 명군 문제로 사후소와 도감에서
일괄하여 수요 물품을 조달하기로 하다
1689. 선조실록 권119 선조 32년 11월 1일(병오) 【24집 1면】 147
서울의 치안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포도대장을 추고하게 하다
1690. 선조실록 권119 선조 32년 11월 6일(신해) 【24집 3면】 148
도승지가 명 군대에 공급할 식량 조달 방식에 대한 호조의 의견을
보고하다

1691. 선조실록 권119 선조 32년 11월 18일(계해) 【24집 6면】 150
포도대장이 서울 치안을 유지할 인력의 절대 부족과 중국계 무리의
행패를 단속할 수 없음을 보고하다
1692. 선조실록 권119 선조 32년 11월 30일(을해) 【24집 11면】 151
대간의 결원으로 서울에 있는 4품 이상 관원을 차출해 정언
박사제의 서경을 하도록 하다
1693. 선조실록 권120 선조 32년 12월 1일(병자) 【24집 12면】 151
임금이 황제의 칙서가 도착하자마자 마중하기로 하다
1694. 선조실록 권120 선조 32년 12월 1일(병자) 【24집 12면】 152
성절사 윤안성 등이 칙서를 받들고 서교에 도착하자, 나가
맞이하다
1695. 선조실록 권120 선조 32년 12월 3일(무인) 【24집 13면】 152
좌우 포도대장이 서울의 치안 유지를 위해 배정된 군사를 줄이지
말 것을 청하다
1696. 선조실록 권120 선조 32년 12월 3일(무인) 【24집 13면】 153
용산창으로 쌀을 운반하기 위해 경기 관원의 관속을 동원하기로 하다
1697. 선조실록 권120 선조 32년 12월 10일(을유) 【24집 15면】 154
경기방어사가 왜란 때 능침을 도굴하는 적을 공격하는 등의 공을
세운 사람에게 상을 내릴 것을 청하다
1698. 선조실록 권120 선조 32년 12월 14일(기축) 【24집 16면】 154
경관의 포럼을 의례상 조정과 시장을 중지시킨 날이 지난 다음
하기로 하다
1699. 선조실록 권120 선조 32년 12월 19일(갑오) 【24집 17면】 155
사헌부에서 서울에서 창기를 데려온 황해도사 허균의 파직을 청하다
1700. 선조실록 권120 선조 32년 12월 26일(신축) 【24집 18면】 155
김신원을 한성부우윤으로 임명하다
1701. 선조실록 권120 선조 32년 12월 28일(계묘) 【24집 19면】 156
출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자가 숙배하지 않는다고 전교하다

1702. 선조실록 권121 선조 33년 정월 7일(임자) 【24집 21면】 156
모화관에 나가 명나라 부총 장방을 전송하다
1703. 선조실록 권121 선조 33년 정월 13일(무오) 【24집 24면】 156
병조에서 관왕묘 축조를 위해 황해도 역군의 동원을 건의했으나
농사철을 이유로 기각하다
1704. 선조실록 권121 선조 33년 정월 18일(계해) 【24집 26면】 157
선릉·정릉 등에 명군이 멋대로 출입하는 폐단을 금단하게 하다
1705. 선조실록 권121 선조 33년 정월 21일(병인) 【24집 27면】 158
훈련도감 포수·살수에게 금군의 예에 따라 보인을 지급하도록
하다
1706. 선조실록 권121 선조 33년 정월 21일(병인) 【24집 27면】 158
명군이 제작한 병선 진수에 한강 일대의 시장민을 동원하기로 하다
1707. 선조실록 권121 선조 33년 정월 22일(정묘) 【24집 27면】 159
북도 출신 포수의 서울 근무를 교대로 운용하기로 하다
1708. 선조실록 권121 선조 33년 정월 22일(정묘) 【24집 28면】 160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해 포수·살수에게 보인을 지급하라고 거듭
지시하다
1709. 선조실록 권122 선조 33년 2월 3일(정축) 【24집 35면】 160
비변사에서 서울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향리의 군관을 징발할 것
등을 건의하다
1710. 선조실록 권122 선조 33년 2월 9일(계미) 【24집 36면】 161
모화관에서 가낭증을 전별하다
1711. 선조실록 권122 선조 33년 2월 10일(갑신) 【24집 37면】 161
사헌부에서 감시 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담당 관리의 파직을
청하다
1712. 선조실록 권122 선조 33년 2월 14일(무자) 【24집 37면】 162
명나라 도사 오중도의 관소를 방문하여 명군 철수와 서울 방어
시설의 정비 문제를 담론하다

1713. 선조실록 권122 선조 33년 2월 14일(무자) 【24집 38면】 163
비변사에서 봉화 체제와 수군의 배치, 승병 운용 등 전반적인 방어
통신 제도의 정비 방안을 마련하다
1714. 선조실록 권122 선조 33년 2월 15일(기축) 【24집 38면】 165
사헌부 건의로 세자 관속인 익위관을 대폭 교체하다
1715. 선조실록 권122 선조 33년 2월 16일(경인) 【24집 38면】 165
서울의 근무지를 이탈해 있는 경기도사 김지남을 추국하게 하다
1716. 선조실록 권122 선조 33년 2월 17일(신묘) 【24집 38면】 166
임금이 용산에서 남방 순찰을 떠나는 제독 이승훈을 전별하다
1717. 선조실록 권122 선조 33년 2월 20일(갑오) 【24집 40면】 166
윤형을 한성우윤으로 임명하다
1718. 선조실록 권122 선조 33년 2월 26일(경자) 【24집 41면】 167
사간원에서 서울의 군량 확보를 위해 참하무관을 납속하여
참상으로 승진시키는 문제점 등 현안을 아뢰다
1719. 선조실록 권123 선조 33년 3월 22일(을축) 【24집 49면】 168
비변사에서 무사 시취할 때 말 타고 활 쏘는 시험의 난이도 조절을
건의하였으나 기각시키다
1720. 선조실록 권123 선조 33년 3월 25일(무진) 【24집 51면】 169
유생이 자발적으로 성균관을 중건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다
1721. 선조실록 권123 선조 33년 3월 29일(임신) 【24집 52면】 169
남방 순행을 마친 제독 이승훈을 맞이하여 향후의 방어책 등을
의논하고 청과로를 이용하여 환궁하다
1722. 선조실록 권123 선조 33년 3월 29일(임신) 【24집 52면】 172
동대문 밖에 거주하는 이주부가 선전관을 사칭하여 경기 고을에서
행패를 부리다
1723. 선조실록 권123 선조 33년 3월 29일(임신) 【24집 53면】 172
사헌부에서 환궁로를 미리 살피지 못했다는 이유로 담당 관리를
처벌할 것을 청하다

1724. 선조실록 권124 선조 33년 4월 1일(갑술) 【24집 53면】 173
 임금이 제독 이승훈의 관소를 방문하여 다례를 행하다
1725. 선조실록 권124 선조 33년 4월 5일(무인) 【24집 54면】 173
 동지 한초명을 영위하다
1726. 선조실록 권124 선조 33년 4월 13일(병술) 【24집 55면】 173
 안찰사 두잠을 영위하다
1727. 선조실록 권124 선조 33년 4월 23일(병신) 【24집 61면】 174
 의주부윤 허욱을 체직시켜 서울에 있게 하다
1728. 선조실록 권124 선조 33년 4월 23일(병신) 【24집 62면】 174
 서울 상인들이 활동하는 중강 개시를 혁파하는 문제를 검토하다
1729. 선조실록 권124 선조 33년 4월 25일(무술) 【24집 63면】 175
 중강 개시를 혁파하기로 결정하다
1730. 선조실록 권124 선조 33년 4월 28일(신축) 【24집 64면】 176
 한성부의 오부 등에서 홍여순 등을 논하였으나 맡은 직무나 잘
 감당하라고 핀잔하다
1731. 선조실록 권126 선조 33년 6월 6일(정축) 【24집 75면】 176
 심우승을 한성부우윤으로 임명하다
1732. 선조실록 권126 선조 33년 6월 7일(무인) 【24집 76면】 177
 정원에서 서울 일대의 심한 홍수 피해로 기청제를 서두르자고
 하다
1733. 선조실록 권126 선조 33년 6월 27일(무술) 【24집 83면】 177
 중전 박씨가 죽다
1734. 선조실록 권127 선조 33년 7월 7일(무신) 【24집 93면】 177
 대행왕비의 지식으로 선릉 개장시에 준비한 지식을 사용토록 하다
1735. 선조실록 권127 선조 33년 7월 11일(임자) 【24집 94면】 178
 대행왕비의 시호를 의인 등으로 정하다
1736. 선조실록 권127 선조 33년 7월 12일(계축) 【24집 95면】 178
 경강에서 관곡을 훔쳐간 도적을 잡기위해 노력하다

1737. 선조실록 권127 선조 33년 7월 14일(을묘) 【24집 96면】 178
사망한 왕비의 능을 조성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하다
1738. 선조실록 권127 선조 33년 7월 14일(을묘) 【24집 98면】 179
의정부 대신이 전 집안을 이주시키는 처벌을 받게 된 전옥서
이졸들의 감형을 건의하다
1739. 선조실록 권127 선조 33년 7월 16일(정사) 【24집 99면】 180
빈전의 여막에서 겁간한 순화군에 대해 정죄할 것을 지시하다
1740. 선조실록 권127 선조 33년 7월 20일(신유) 【24집 101면】 181
상중에 겁간한 순화군 이보를 외방으로 귀양 보내기로 하다
1741. 선조실록 권127 선조 33년 7월 21일(임술) 【24집 101면】 181
윤근수가 섭정국 등과 고양·안산 등에서 장지를 살펴본 후 보고하다
1742. 선조실록 권127 선조 33년 7월 22일(계해) 【24집 102면】 182
영의정 이항복 등과 대행왕비의 장지 선정 문제로 논의하다
1743. 선조실록 권127 선조 33년 7월 25일(병인) 【24집 104면】 184
영의정 이항복 등이 왕비릉 후보지로 포천 신평의 산지 간심
결과를 아뢰다
1744. 선조실록 권127 선조 33년 7월 27일(무진) 【24집 107면】 185
총호사 이현국이 인산 절차에 대해 아뢰다
1745. 선조실록 권128 선조 33년 8월 29일(기해) 【24집 117면】 186
대행왕비의 장지 선정 관계로 논의가 분분하다
1746. 선조실록 권129 선조 33년 9월 2일(임인) 【24집 121면】 187
해원부원군 윤두수 등과 대행왕비의 장지에 대해 논의하다
1747. 선조실록 권129 선조 33년 9월 10일(경술) 【24집 125면】 189
홍제원에 행행하여 만경리를 전별하다
1748. 선조실록 권129 선조 33년 9월 15일(을묘) 【24집 126면】 189
남대문 밖에서 한동지를 전별하다
1749. 선조실록 권129 선조 33년 9월 20일(경신) 【24집 127면】 189
입암동에 행행하여 부사 두잠을 전별하다

1750. 선조실록 권129 선조 33년 9월 21일(신유) 【24집 127면】 189
 제독 이승훈을 찾아가서 다례 등을 행하며 도성 수비책 등에 대해
 논의하다
1751. 선조실록 권129 선조 33년 9월 26일(병인) 【24집 129면】 191
 비변사에서 피난간 서울거주 대가거족의 조속한 귀환 및 경강
 주민의 부역 과중 등 현안을 보고하다
1752. 선조실록 권129 선조 33년 9월 27일(정묘) 【24집 130면】 196
 모화관에서 명나라 제독 이승훈을 전위하다
1753. 선조실록 권129 선조 33년 9월 30일(경오) 【24집 131면】 196
 해평부원군 윤근수 등이 이문통과 경복궁 터를 본 결과를 보고하다
1754. 선조실록 권130 선조 33년 10월 13일(계미) 【24집 137면】 196
 대행왕비의 증시책보례를 남별궁에서 연습하다
1755. 선조실록 권130 선조 33년 10월 15일(을유) 【24집 137면】 197
 모화관에 나아가 통판 도양성을 전위하다
1756. 선조실록 권130 선조 33년 10월 18일(무자) 【24집 138면】 197
 훈련도감에서 명 장수 섭정국이 무예 전수에 무성의하며, 명
 도망병에 의한 폐단이 우려됨을 보고하다
1757. 선조실록 권130 선조 33년 10월 19일(기축) 【24집 138면】 198
 남관왕묘 수직에 훈련원 병력을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하다
1758. 선조실록 권130 선조 33년 10월 20일(경인) 【24집 139면】 198
 관왕묘 수직에 참봉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게 하다
1759. 선조실록 권130 선조 33년 10월 22일(임진) 【24집 141면】 199
 훈련도감의 건의로 명군에게 습진 훈련을 받지 않기로 하다
1760. 선조실록 권130 선조 33년 10월 29일(기해) 【24집 143면】 199
 예조에서 의인왕후 능의 석물에 대한 일로 아뢰다
1761. 선조실록 권131 선조 33년 11월 7일(정미) 【24집 145면】 200
 총호사 이헌국이 인산 택정을 대신을 불러 의논해야 한다고
 아뢰다

1762. 선조실록 권131 선조 33년 11월 7일(정미) 【24집 145면】 201
 영의정 이항복 등이 의인왕후의 장지에 대해 논의하다
1763. 선조실록 권131 선조 33년 11월 9일(기유) 【24집 146면】 202
 의인왕후의 장지를 건원릉 능역 안에 조성하기로 결정하다
1764. 선조실록 권131 선조 33년 11월 9일(기유) 【24집 148면】 206
 인산도감에서 역군이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달아나는 문제를 아뢰다
1765. 선조실록 권131 선조 33년 11월 13일(계축) 【24집 149면】 207
 진사와 배포의 예를 남별궁에서 대행 하게 하다
1766. 선조실록 권131 선조 33년 11월 14일(갑인) 【24집 149면】 207
 관원이 서울의 민가를 점탈하지 못하도록 한성부에서 통제하게
 하다
1767. 선조실록 권131 선조 33년 11월 16일(병진) 【24집 150면】 208
 남별궁에서 동지 망궐례를 행하다
1768. 선조실록 권131 선조 33년 11월 18일(무오) 【24집 151면】 208
 승지들이 명나라 도망병이 서울로 체포되어 오는 문제를 보고하다
1769. 선조실록 권131 선조 33년 11월 21일(신유) 【24집 152면】 209
 국장에 소용될 물건의 지출을 일일이 중기에 기재하여 관리하게
 하다
1770. 선조실록 권131 선조 33년 11월 24일(갑자) 【24집 153면】 210
 호조의 재정 운영 방안과 당시 조세 징수 등에 대한 사평
1771. 선조실록 권131 선조 33년 11월 25일(을축) 【24집 153면】 211
 수원에 정배 중인 순화군 이보를 차라리 서울에 두자는 헌부의
 건의와 왕자의 작폐에 대한 사평
1772. 선조실록 권132 선조 33년 12월 1일(경오) 【24집 156면】 213
 어리고 총명한 자를 성군관 하재에 소속하여 공부하게 한 후
 우수자에게 생원·진사시의 응시 자격을 주기로 하다
1773. 선조실록 권132 선조 33년 12월 2일(신미) 【24집 158면】 214
 서울 유학들은 서울의 학교에, 외방 유학들은 향교에 소속시키다

1774. 선조실록 권132 선조 33년 12월 2일(신미) 【24집 158면】 215
순화군의 적소 단속을 지시하다
1775. 선조실록 권132 선조 33년 12월 6일(을해) 【24집 160면】 215
사간원에서 경학을 강조할 것, 서울의 훈련도감에 짝하는 지방의
군사 조련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건의하다
1776. 선조실록 권132 선조 33년 12월 12일(신사) 【24집 162면】 216
동대문 밖의 도로 정비 부실로 굴토감역관 등을 처벌하다
1777. 선조실록 권132 선조 33년 12월 13일(임오) 【24집 163면】 217
서울의 각 관사에서 과도한 인원 및 경비 배정 요구를 줄이라고 지시하다
1778. 선조실록 권132 선조 33년 12월 16일(을유) 【24집 165면】 218
대행왕비의 내지를 능숙에 봉납하는 문제를 재검토하게 하다
1779. 선조실록 권132 선조 33년 12월 19일(무자) 【24집 167면】 218
대행왕비의 내지를 능숙에 봉납하기로 하다
1780. 선조실록 권132 선조 33년 12월 22일(신묘) 【24집 168면】 219
예조낭청이 영악전 등이 불탔음을 아뢰다
1781. 선조실록 권132 선조 33년 12월 22일(신묘) 【24집 168면】 219
대신 등이 영악전이 소실된 이유로 문안하다
1782. 선조실록 권132 선조 33년 12월 22일(신묘) 【24집 168면】 220
빈전도감에서 하관을 계획대로 하겠다고 하다
1783. 선조실록 권132 선조 33년 12월 22일(신묘) 【24집 168면】 220
우부승지가 화재 소화 작업 과정과 영침 외에 훼손된 물건이
없다고 보고하다
1784. 선조실록 권132 선조 33년 12월 22일(신묘) 【24집 168면】 221
예조에서 화재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계획대로 마친 것을 아뢰다
1785. 선조실록 권132 선조 33년 12월 22일(신묘) 【24집 169면】 222
방화 혐의자의 투옥을 전교하다
1786. 선조실록 권132 선조 33년 12월 22일(신묘) 【24집 169면】 222
장령 조익이 화재 책임을 물어 관련자 등의 처벌을 건의하다

1787. 선조실록 권132 선조 33년 12월 23일(임진) 【24집 169면】 223
 방화자인 나인 옥란을 국문하고 금부에 가두라고 전교하다
1788. 선조실록 권132 선조 33년 12월 23일(임진) 【24집 169면】 223
 지평 이집이 발인날 궁궐 북문 밖 대로를 지나는 일로 군율에
 저촉된 사안을 변명하다
1789. 선조실록 권132 선조 33년 12월 23일(임진) 【24집 170면】 224
 예조판서 이정구가 화재 등 장례식 진행 상의 문제로 죄를 청하다
1790. 선조실록 권132 선조 33년 12월 27일(병신) 【24집 171면】 225
 국장도감에서 영악전 화재시 공로자를 보고하다
1791. 선조실록 권133 선조 34년 정월 3일(임인) 【24집 173면】 226
 봄에 봉록을 줄 때 소미에 대미를 곁들여 주기로 하다
1792. 선조실록 권133 선조 34년 정월 3일(임인) 【24집 173면】 226
 동대문 일대에 숨어있는 명나라 도망병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다
1793. 선조실록 권133 선조 34년 정월 3일(임인) 【24집 173면】 227
 명나라 위관들의 보호를 위해 훈련도감 군인을 출동시키기로 하다
1794. 선조실록 권133 선조 34년 정월 3일(임인) 【24집 173면】 228
 명 도망병이 위관을 인질로 협상하다
1795. 선조실록 권133 선조 34년 정월 3일(임인) 【24집 174면】 228
 각 관청에서 차지한 뽕밭을 원래의 공상기관에 돌려주게 하다
1796. 선조실록 권133 선조 34년 정월 4일(계묘) 【24집 174면】 229
 위관을 인질로 잡고 동대문 일대에 머물러 있는 명 도망병에 대한
 진압책을 논의하다
1797. 선조실록 권133 선조 34년 정월 4일(계묘) 【24집 174면】 230
 명 도망병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의 사대문 금령을 엄히
 하기로 하다
1798. 선조실록 권133 선조 34년 정월 4일(계묘) 【24집 174면】 232
 병조에서 명 도망병의 진압 준비가 끝났지만 이승충 때문에
 공격하지 못함을 아뢰다

1799. 선조실록 권133 선조 34년 정월 4일(계묘) 【24집 175면】 234
서울에서의 명 도망병 사태를 계기로 지방관에게 기찰 강화를
지시하다
1800. 선조실록 권133 선조 34년 정월 5일(갑진) 【24집 175면】 234
사헌부에서 처음 지문 지은 사람이 서울에 없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을 아뢰다
1801. 선조실록 권133 선조 34년 정월 5일(갑진) 【24집 175면】 235
동대문 일대의 명 도망병들이 항복할 의사를 전하다
1802. 선조실록 권133 선조 34년 정월 5일(갑진) 【24집 176면】 235
훈련도감에서 동대문 일대의 명 도망병을 모두 잡았다고 아뢰다
1803. 선조실록 권133 선조 34년 정월 5일(갑진) 【24집 176면】 236
비변사에서 명 도망병의 압송이 허술하게 시행되고 있음을
보고하다
1804. 선조실록 권133 선조 34년 정월 6일(을사) 【24집 177면】 237
이축을 한성부판윤으로 임명하다
1805. 선조실록 권133 선조 34년 정월 16일(을묘) 【24집 180면】 237
대사헌 성영이 임진난 때 서울 일원에서의 자신의 행적을 들어
파직을 청하다
1806. 선조실록 권133 선조 34년 정월 16일(을묘) 【24집 181면】 241
대제학 심희수에게 지문을 손질할 것을 전교하다
1807. 선조실록 권133 선조 34년 정월 16일(을묘) 【24집 182면】 241
민준을 한성부우윤으로 임명하다
1808. 선조실록 권133 선조 34년 정월 17일(병진) 【24집 186면】 242
체찰사 이덕형과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방어 체제에 대해 논의하다
1809. 선조실록 권133 선조 34년 정월 18일(정사) 【24집 186면】 257
서울 안팎의 도둑 횡행 건으로 해당 관리를 처벌하기로 하다
1810. 선조실록 권133 선조 34년 정월 21일(경신) 【24집 186면】 259
영약전 화재 진압에 공이 있는 자에게 논상하다

1811. 선조실록 권133 선조 34년 정월 26일(을축) 【24집 187면】 260
신잡을 한성부판윤에 임명하다
1812. 선조실록 권134 선조 34년 2월 1일(경오) 【24집 188면】 260
대신들과 국정 전반, 특히 국방에 대해 상의하다
1813. 선조실록 권134 선조 34년 2월 2일(신미) 【24집 191면】 270
예조에서 종묘사직의 의물을 갖출 것을 건의하다
1814. 선조실록 권134 선조 34년 2월 3일(임신) 【24집 191면】 271
시강원에서 서울에 있는 관원으로 시강원 관원을 교체 발령할 것을
건의하다
1815. 선조실록 권134 선조 34년 2월 9일(무인) 【24집 195면】 272
해주에서 발생한 강상에 관한 옥사를 서울에서 처리하기로 하다
1816. 선조실록 권134 선조 34년 2월 10일(기묘) 【24집 195면】 273
대신 및 비변사 당상과 일본 침입에 대한 방비책을 상의하다
1817. 선조실록 권134 선조 34년 2월 11일(경진) 【24집 198면】 285
효경전 참봉이 동쪽 담장 밑에서 사람 뼈를 발견한 사실을 아뢰다
1818. 선조실록 권134 선조 34년 2월 12일(신사) 【24집 198면】 286
상호군 유영경 등이 정전을 잘 소제하지 못한 이유로 대죄를 청하다
1819. 선조실록 권134 선조 34년 2월 12일(신사) 【24집 198면】 286
유근을 한성부판윤으로 임명하다
1820. 선조실록 권134 선조 34년 2월 14일(계미) 【24집 198면】 287
훈련도감에서 시재를 통한 서얼의 허통을 건의하다
1821. 선조실록 권134 선조 34년 2월 15일(갑신) 【24집 199면】 288
함북 병마절도사가 경군 등을 동원하여 여진족 부락을 토벌한
사실을 치계하다
1822. 선조실록 권134 선조 34년 2월 16일(을유) 【24집 200면】 291
비변사에 서울의 대비태세가 안이함을 질책하다
1823. 선조실록 권134 선조 34년 2월 19일(무자) 【24집 201면】 292
비변사에서 무장 중 쓸만한 인재를 서울에 집결시켜 활용하자고 건의하다

1824. 선조실록 권134 선조 34년 2월 20일(기축) 【24집 202면】 294
의금부에서 악전 화재 사건의 조사 상황을 보고하다
1825. 선조실록 권134 선조 34년 2월 22일(신묘) 【24집 203면】 294
의금부에서 영악전 방화 혐의자인 춘금과 희리금을 조사하기로 하다
1826. 선조실록 권134 선조 34년 2월 24일(계사) 【24집 204면】 295
유생이 모은 재물로 문묘를 재건하기로 하다
1827. 선조실록 권134 선조 34년 2월 24일(계사) 【24집 204면】 295
한성부에서 동대문 밖 개천 개구리떼의 죽음을 아뢰다
1828. 선조실록 권134 선조 34년 2월 24일(계사) 【24집 204면】 296
함경감사로 임명받은 신잡을 인견하여 서울에서 백성 안집책 등 정국 현안을 논의하다
1829. 선조실록 권134 선조 34년 2월 24일(계사) 【24집 205면】 302
유성이 나타나다
1830. 선조실록 권134 선조 34년 2월 25일(갑오) 【24집 206면】 302
사형수를 재심하다
1831. 선조실록 권134 선조 34년 2월 27일(병신) 【24집 207면】 304
예조에서 세자가 유릉에 친제할 때 건원릉과 현릉에 배례할 것을 건의하다
1832. 선조실록 권135 선조 34년 3월 1일(기해) 【24집 209면】 304
훈련도감의 건의로 병력의 유고 사유를 상세히 조사하기로 하다
1833. 선조실록 권135 선조 34년 3월 7일(을사) 【24집 210면】 306
천변을 계기로 사간원에서 국정 전반의 난맥상을 지적하다
1834. 선조실록 권135 선조 34년 3월 10일(무신) 【24집 211면】 308
순화군을 서울로 데려 오는 것을 전교하다
1835. 선조실록 권135 선조 34년 3월 11일(기유) 【24집 211면】 308
서울에서 의주로 피난할 때 호종한 관인을 확정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하다

1836. 선조실록 권135 선조 34년 3월 15일(계축) 【24집 213면】 310
 훈련도감에서 사냥한 짐승으로 각초 군사를 먹이는 방안을
 보고하다
1837. 선조실록 권135 선조 34년 3월 15일(계축) 【24집 213면】 310
 훈련도감에서 군사 봉족에 대하여 아뢰다
1838. 선조실록 권135 선조 34년 3월 17일(을묘) 【24집 218면】 312
 병조에서 남대문루의 화전을 도적이 훔쳐간 사건을 아뢰다
1839. 선조실록 권135 선조 34년 3월 19일(정사) 【24집 219면】 313
 경연에서 북방의 군사 및 병조의 군대 양성 등을 논의하다
1840. 선조실록 권135 선조 34년 3월 27일(을축) 【24집 226면】 323
 부방하는 포·살수들에게 술을 내려주고, 잡역의 면제와 남은
 가족의 구휼을 지시하다
1841. 선조실록 권136 선조 34년 4월 2일(기사) 【24집 228면】 323
 방물을 규정대로 마련하여 올리도록 지시하다
1842. 선조실록 권136 선조 34년 4월 3일(경오) 【24집 228면】 324
 섭정국의 괴이한 술수에 속아 서울에 머물러 폐단을 야기하게 한
 국왕의 행태를 비판하는 사론
1843. 선조실록 권136 선조 34년 4월 5일(임신) 【24집 229면】 326
 비변사에서 일본에서 도망쳐 온 자들에 대한 조사가 불필요함을
 건의하다
1844. 선조실록 권136 선조 34년 4월 11일(무인) 【24집 231면】 327
 세입 감소에 따른 관리의 감원 기준을 정하다
1845. 선조실록 권136 선조 34년 4월 14일(신사) 【24집 233면】 328
 우승지 윤안성이 역의 말과 인력을 서울에 머물게 함으로써
 야기되는 폐단 등 현안에 대해 보고하다
1846. 선조실록 권136 선조 34년 4월 21일(무자) 【24집 235면】 329
 예조에서 효자·열녀·충신 등의 관련 사항은 각 관청 보고에
 따랐다고 하다

1847. 선조실록 권136 선조 34년 4월 21일(무자) 【24집 235면】 331
지방에 머무는 승정원의 전임자까지 상경시켜 《승정원일기》를
수정하게 하기로 하다
1848. 선조실록 권136 선조 34년 4월 23일(경인) 【24집 236면】 332
농사를 우려하여 유릉 공사에 서울의 하번 군사를 투입하기로 하다
1849. 선조실록 권136 선조 34년 4월 25일(임진) 【24집 237면】 332
모화관에 행행하다
1850. 선조실록 권136 선조 34년 4월 25일(임진) 【24집 237면】 332
황제의 조서를 맞이하고 재조관 두양신과 상견례를 하다
1851. 선조실록 권136 선조 34년 4월 25일(임진) 【24집 237면】 333
공회빈과 순회세자의 신주를 세울 것을 전교하다
1852. 선조실록 권136 선조 34년 4월 30일(정유) 【24집 240면】 334
대신들과 왕이 피난할 때 수행한 논공행상에 대해 논의하다
1853. 선조실록 권137 선조 34년 5월 1일(무술) 【24집 242면】 338
우찬성 심희수가 만경리가 말한 문묘의 공자 위호 문제를 아뢰다
1854. 선조실록 권137 선조 34년 5월 16일(계축) 【24집 252면】 342
경기관찰사 남이신이 과천현감의 첩정을 들어 김성의 처 나씨의
포상을 청하다
1855. 선조실록 권137 선조 34년 5월 16일(계축) 【24집 252면】 342
성영을 한성부판윤으로 임명하다
1856. 선조실록 권137 선조 34년 5월 18일(을묘) 【24집 252면】 343
예조가 가뭄으로 인해 한강·삼각산 등에 기우제를 지낼 것을 청하다
1857. 선조실록 권137 선조 34년 5월 21일(무오) 【24집 256면】 343
간원이 타인을 사칭한 훈련원참군 임명수의 파직 등에 대한 사안을
아뢰다
1858. 선조실록 권137 선조 34년 5월 21일(무오) 【24집 257면】 345
훈련도감이 화약 제조기술자 손용에게 전습 받은 일과 포상하는
일을 아뢰다

1859. 선조실록 권138 선조 34년 6월 3일(기사) 【24집 261면】 346
 헌부에서 비변사가 본래 업무만 담당하게 할 것과 민결의 쇠마를
 금할 것을 아뢰다
1860. 선조실록 권138 선조 34년 6월 8일(갑술) 【24집 263면】 348
 예조가 서울 거주 관원의 복색의 건으로 의논한 내용을 아뢰다
1861. 선조실록 권138 선조 34년 6월 19일(을유) 【24집 267면】 351
 헌부에서 동관왕묘 건립의 폐단·평시서에서의 세금 징수 등의
 건으로 해당 관원의 처벌을 건의하다
1862. 선조실록 권139 선조 34년 7월 5일(경자) 【24집 275면】 353
 동관왕묘의 일로 해당 관원 및 대간 사이의 논란 및 당시의 의론
1863. 선조실록 권139 선조 34년 7월 5일(경자) 【24집 275면】 354
 한효순을 한성부판윤, 황신을 한성부우윤으로 임명하다
1864. 선조실록 권139 선조 34년 7월 8일(계묘) 【24집 276면】 354
 헌부가 종묘와 사직 수복의 횡포를 논하고, 당직 참봉의 파직을 청하다
1865. 선조실록 권139 선조 34년 7월 11일(병오) 【24집 276면】 355
 궐내 출입의 단속을 제대로 못할 경우 병조의 입직 관원을
 처벌하기로 하다
1866. 선조실록 권139 선조 34년 7월 17일(임자) 【24집 277면】 355
 송언신을 한성부좌윤으로 임명하다
1867. 선조실록 권139 선조 34년 7월 21일(병진) 【24집 279면】 356
 서울의 입번군사에게 병장기를 직접 갖추도록 하고 사대부들의
 방납 폐단을 엄히 금하기로 하다
1868. 선조실록 권139 선조 34년 7월 26일(신유) 【24집 280면】 357
 허옥을 한성부판윤으로 임명하다
1869. 선조실록 권139 선조 34년 7월 30일(을축) 【24집 280면】 357
 사헌부에서 기경한 전결 수세와 관리 문제에 대해 건의하다
1870. 선조실록 권140 선조 34년 8월 5일(경오) 【24집 282면】 358
 녹을 받으면서 지방에 머무는 종친을 모두 서울에서 시위하게 하다

1871. 선조실록 권140 선조 34년 8월 17일(임오) 【24집 287면】 359
 임진년에 포로가 되었던 서울 사람 박언황이 보고 들은 내용
1872. 선조실록 권140 선조 34년 8월 24일(기축) 【24집 289면】 360
 예조가 서울의 선비를 격려하여 공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보고하다
1873. 선조실록 권140 선조 34년 8월 28일(계사) 【24집 290면】 361
 임금이 《주역》을 강하고, 수령의 선발, 백성의 사역 등 현안을 논의하다
1874. 선조실록 권141 선조 34년 9월 3일(정유) 【24집 293면】 368
 해주에 있던 왕실의 여성들이 서울로 돌아오다
1875. 선조실록 권141 선조 34년 9월 6일(경자) 【24집 294면】 369
 임금이 《주역》을 강하고, 서울 선비의 학문을 진작시키는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하다
1876. 선조실록 권141 선조 34년 9월 7일(신축) 【24집 295면】 371
 서울에서의 강력사건 발생으로 포도청 담당 군관을 처벌하다
1877. 선조실록 권141 선조 34년 9월 9일(계묘) 【24집 295면】 372
 헌부가 관왕묘의 일, 서울에서의 강력 사건 발생에 따른 포도청
 군관의 처벌 등을 아뢰다
1878. 선조실록 권141 선조 34년 9월 11일(을사) 【24집 297면】 372
 서울 인근에서 강도죄를 범한 훈련원정 방은정과 수문장 김덕룡
 등의 처리를 검토하다
1879. 선조실록 권141 선조 34년 9월 18일(임자) 【24집 296면】 373
 한효순을 한성부판윤으로 임명하다
1880. 선조실록 권141 선조 34년 9월 19일(계축) 【24집 298면】 374
 간원에서 삼명일의 방물, 사옹원의 임무, 선전관의 자격 등에 대해
 아뢰다
1881. 선조실록 권141 선조 34년 9월 24일(무오) 【24집 299면】 376
 헌부의 건의로 묵은 땅에 대한 부세 징수 계획을 조정하기로 하다
1882. 선조실록 권141 선조 34년 9월 30일(갑자) 【24집 301면】 377
 신공을 받으러 온 주인을 공무하여 죽인 종의 사형죄에 대해 검토하다

1883. 선조실록 권142 선조 34년 10월 1일(을축) 【24집 301면】 377
주인을 시해한 노비 수이 등을 당고개에서 복주하다
1884. 선조실록 권142 선조 34년 10월 7일(신미) 【24집 302면】 378
예조에서 새로 왕비를 맞아들일 것을 청하다
1885. 선조실록 권142 선조 34년 10월 11일(을해) 【24집 302면】 378
간원에서 종친을 서둘러 서울로 이주하게 하는 등의 현안을
보고하다
1886. 선조실록 권142 선조 34년 10월 23일(정해) 【24집 307면】 379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주위 추장 노을가적이 서울에 와서
직첩받기를 청하다
1887. 선조실록 권142 선조 34년 10월 28일(임진) 【24집 310면】 380
건주위의 노추가 서울에서 직첩받기를 청한 일로 득실을 헤아리다
1888. 선조실록 권143 선조 34년 11월 10일(갑진) 【24집 315면】 383
왕비 간택을 위해 서울 및 지방 처녀의 단자를 들이도록 하다
1889. 선조실록 권143 선조 34년 11월 14일(무신) 【24집 316면】 384
국용에 충당하기 위해 서울 가호에서 호포를 걷는 방안을 검토하다
1890. 선조실록 권143 선조 34년 11월 16일(경술) 【24집 317면】 386
명 사신의 접대비용을 위해 서울에서 호포를 징수하기로 하다
1891. 선조실록 권143 선조 34년 11월 26일(경신) 【24집 320면】 387
정원에서 왕지휘가 조선에 들어온 이유를 조사하여 보고하다
1892. 선조실록 권143 선조 34년 11월 27일(신유) 【24집 320면】 388
한성부에서 은을 이용한 교역을 엄히 금하도록 지시하다
1893. 선조실록 권144 선조 34년 12월 1일(갑자) 【24집 321면】 388
조칙을 맞이할 때 다섯 번 절하는 예도의 시행을 다시 확인하다
1894. 선조실록 권144 선조 34년 12월 2일(을축) 【24집 321면】 389
이시언을 한성부판윤으로 임명하다
1895. 선조실록 권144 선조 34년 12월 3일(병인) 【24집 321면】 389
요동도사지휘사 왕급이 서울에 도착하다

1896. 선조실록 권144 선조 34년 12월 4일(정묘) 【24집 321면】 390
간원에서 사신 접대를 위한 물품 분정이 과하다는 것과 한성판윤의
교체를 주장하다
1897. 선조실록 권144 선조 34년 12월 6일(기사) 【24집 322면】 391
한성판윤 이시언의 교체를 건의했으나 거부하다
1898. 선조실록 권144 선조 34년 12월 6일(기사) 【24집 322면】 391
명사 접대를 위한 물품 정수를 기회로 서울에서 방납하는 권세가의
횡포를 금지하다
1899. 선조실록 권144 선조 34년 12월 6일(기사) 【24집 322면】 392
모화관에서 조칙을 맞이하는 예도에 대해 검토하다
1900. 선조실록 권144 선조 34년 12월 7일(경오) 【24집 322면】 393
요동 소속의 명 관원을 시간을 내어 접견하고 차와 술을 나누다
1901. 선조실록 권144 선조 34년 12월 8일(신미) 【24집 322면】 395
요동 관원 왕급을 접견하여 서로 절하고 술과 음식을 나누다
1902. 선조실록 권144 선조 34년 12월 11일(갑술) 【24집 323면】 396
각 행사후 남은 물품을 소홀히 한 자를 파직하기로 하다
1903. 선조실록 권144 선조 34년 12월 12일(을해) 【24집 323면】 397
헌부가 조사 접대의 과다함을 국력이 당해낼 수 없음을 아뢰다
1904. 선조실록 권144 선조 34년 12월 12일(을해) 【24집 324면】 399
도승지가 업무차 오는 명의 지방 관원을 임시로 서울에 진입하게
하자고 건의하다
1905. 선조실록 권144 선조 34년 12월 14일(정축) 【24집 324면】 401
예조가 등항재조관이 바로 입성하는 것이 평시 규례가 아님을
아뢰다
1906. 선조실록 권144 선조 34년 12월 20일(계미) 【24집 326면】 401
비망기로 가례도감 없이 왕비를 간택하는 방안에 대해 지시하다
1907. 선조실록 권144 선조 34년 12월 21일(갑신) 【24집 327면】 402
국왕 혼례를 위해 가례도감을 설치하기로 하다

1908. 선조실록 권144 선조 34년 12월 27일(경인) 【24집 329면】 402
가례도감의 구성 사례를 보고하다
1909. 선조실록 권145 선조 35년 정월 1일(갑오) 【24집 332면】 403
묘시에 명나라에 대한 정조하례를 행하다
1910. 선조실록 권145 선조 35년 정월 8일(신축) 【24집 332면】 403
헌부에서 경차관의 신속한 파견, 귀화 중국인의 서울 거주 문제
등을 논하다
1911. 선조실록 권145 선조 35년 정월 9일(임인) 【24집 333면】 404
면복을 맞이하는 예에 대한 여러 대신들의 의견을 보고하다
1912. 선조실록 권145 선조 35년 정월 13일(병오) 【24집 334면】 405
간원의 건의로 서울에서의 호포 징수를 중단하다
1913. 선조실록 권145 선조 35년 정월 18일(신해) 【24집 336면】 406
이준을 한성부좌윤으로 임명하다
1914. 선조실록 권145 선조 35년 정월 21일(갑인) 【24집 336면】 406
영접도감에서 장소의 변경에 따라 잔치 상의 규모를 조정하는
문제를 보고하다
1915. 선조실록 권145 선조 35년 정월 30일(계해) 【24집 336면】 407
가례도감이 세자가례 등을 참작하여 국왕 가례의 시행방식을
보고하다
1916. 선조실록 권146 선조 35년 2월 2일(을축) 【24집 337면】 409
도체찰사 이덕형이 변경의 어려움을 간하면서 서울의 의연한
모습을 언급하다
1917. 선조실록 권146 선조 35년 2월 5일(무진) 【24집 339면】 413
헌부에서 국왕 혼례 등의 경비조달을 위해 서울에서 지나치게
징세함을 문제 삼다
1918. 선조실록 권146 선조 35년 2월 6일(기사) 【24집 340면】 414
병조에서 관서 지방에 서울 훈련도감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보고하다

1919. 선조실록 권146 선조 35년 2월 7일(경오) 【24집 341면】 415
서울출신 선비 최영경의 옥사와 관련된 국왕의 지시를 사평하다
1920. 선조실록 권146 선조 35년 2월 7일(경오) 【24집 342면】 418
중국사신을 지공할 때 잡물을 회계로 처리하고 해유할 때
적용하기로 하다
1921. 선조실록 권146 선조 35년 2월 8일(신미) 【24집 342면】 418
성절사 조정 등이 가져온 고명과 면복을 교외에서 직접
맞이하다
1922. 선조실록 권146 선조 35년 2월 9일(임신) 【24집 343면】 419
서울에서 진행되는 국가의례에 참여해야 하는 연로한 관원의
괴로움
1923. 선조실록 권146 선조 35년 2월 15일(무인) 【24집 346면】 420
서울 상인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 관원 접대용 은그릇을
도금한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다
1924. 선조실록 권146 선조 35년 2월 24일(정해) 【24집 348면】 422
국왕의 혼례를 앞두고 예조에서 □오례의□의 상제와 책비 의식을
검토하여 보고하다
1925. 선조실록 권147 선조 35년 윤2월 1일(갑오) 【24집 349면】 424
호조에서 훈련도감의 경비 충당을 위해 산택을 이용하는 등의
방안을 보고하다
1926. 선조실록 권147 선조 35년 윤2월 6일(기해) 【24집 351면】 425
명나라 조사의 방문에 즈음하여 도성에서 남녀가 함께 장사하는
것을 금하게 하다
1927. 선조실록 권147 선조 35년 윤2월 23일(병진) 【24집 355면】 425
명 조사의 방문에 즈음하여 한성부에서 명군과 접촉하는 유녀를
단속하게 하다
1928. 선조실록 권148 선조 35년 3월 4일(병인) 【24집 358면】 426
서울의 진홀 업무시 부정을 행한 관원의 수령 발령을 취소하다

1929. 선조실록 권148 선조 35년 3월 6일(무진) 【24집 359면】 427
 영의정 이덕형 등이 조칙을 받고 명나라 사신을 영접하는 예에
 대해 논하다
1930. 선조실록 권148 선조 35년 3월 10일(임신) 【24집 361면】 429
 명나라 조사의 관소에 행행하여 잔치를 베풀다
1931. 선조실록 권148 선조 35년 3월 10일(임신) 【24집 361면】 430
 관반 심희수가 명나라 사신이 뇌물 요구한 사실을 아뢰다
1932. 선조실록 권148 선조 35년 3월 10일(임신) 【24집 361면】 430
 명나라 사신의 탐욕스런 뇌물 요청을 들어주라 지시하다
1933. 선조실록 권148 선조 35년 3월 12일(갑술) 【24집 361면】 431
 뇌물 밝히는 명나라 사신의 요구에 적절히 응해 줄 것을 지시하다
1934. 선조실록 권148 선조 35년 3월 16일(무인) 【24집 362면】 433
 태평관에 행행하여 송별하는 잔치를 거행하다
1935. 선조실록 권148 선조 35년 3월 17일(기묘) 【24집 362면】 433
 대사헌 정인홍이 차자를 올려 자신의 당론을 옹호하며 사직하나
 허락하지 않다
1936. 선조실록 권148 선조 35년 3월 22일(갑신) 【24집 364면】 440
 함부로 노복을 살해한 한성판윤과 임지를 이탈하여 서울에 출입한
 경기 수령의 파직을 결정하다
1937. 선조실록 권148 선조 35년 3월 25일(정해) 【24집 365면】 441
 정사를 행하고 도승지 서성을 한성부판윤에 임명하다
1938. 선조실록 권148 선조 35년 3월 25일(정해) 【24집 365면】 441
 대사헌 정인홍이 사퇴의사를 밝히며 인사를 신중히 하고 내치에
 치중할 것을 건의하다
1939. 선조실록 권148 선조 35년 3월 29일(신묘) 【24집 369면】 452
 정인홍을 둘러싼 서울 정계의 분위기에 대해 홍문관에서 상소하다
1940. 선조실록 권149 선조 35년 4월 21일(임자) 【24집 376면】 455
 한성판관 조윤희 등을 윤대하여 해당 관사의 문제점에 대해 듣다

1941. 선조실록 권149 선조 35년 4월 23일(갑인) 【24집 377면】 456
 정인홍이 도성 밖에 머물면서 사직을 청하는 상소를 올려
 임금으로부터 더욱 높임과 관심을 받다
1942. 선조실록 권149 선조 35년 4월 28일(기미) 【24집 379면】 458
 정인홍이 다시 한강을 건너와 머물고 있으면서 상소를 올리다
1943. 선조실록 권149 선조 35년 4월 29일(경신) 【24집 379면】 460
 친영하는 예를 태평관에서 행하기로 하다
1944. 선조실록 권150 선조 35년 5월 3일(갑자) 【24집 381면】 460
 예조의 건의로 중국 황태자 관련 의식에 궁패를 설치하도록
 하다
1945. 선조실록 권150 선조 35년 5월 5일(병인) 【24집 381면】 461
 오부에서 도성의 기괴한 풍속을 단속하기로 하다
1946. 선조실록 권150 선조 35년 5월 6일(정묘) 【24집 382면】 462
 호조의 건의로 각 고을의 요역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수령의
 고과에 반영하도록 하다
1947. 선조실록 권150 선조 35년 5월 11일(임신) 【24집 382면】 463
 비변사에서 수군 과거시험을 보고하니 전시·복시의 서울에서의
 시행 원칙을 거듭 천명하다
1948. 선조실록 권150 선조 35년 5월 16일(정축) 【24집 383면】 464
 한성부를 비롯한 해당 관서에서 잔류한 명나라 사람을 단속하도록
 지시하다
1949. 선조실록 권150 선조 35년 5월 23일(갑신) 【24집 384면】 465
 사옹원이 대례를 맡는 관서에 대해 아뢰다
1950. 선조실록 권150 선조 35년 5월 27일(무자) 【24집 384면】 465
 간원에서 국혼에 사용할 물품에 대해 아뢰고, 사관은 호사스러움을
 비판하는 사평을 쓰다
1951. 선조실록 권151 선조 35년 6월 10일(경자) 【24집 387면】 467
 성균관에서의 소 도살 행위를 엄금하도록 비망기로 지시하다

1952. 선조실록 권151 선조 35년 6월 11일(신축) 【24집 387면】 467
순화군을 비롯한 왕자들이 백성에게 해독을 끼치다
1953. 선조실록 권151 선조 35년 6월 11일(신축) 【24집 388면】 468
가례시 종친, 문무 친공신의 부인 등 외명부의 입참에 대해 지시하다
1954. 선조실록 권151 선조 35년 6월 14일(갑진) 【24집 388면】 469
등황재조관이 서울에 오는 문제를 검토하고, 명 사신의 탐욕스러운 행태에 대해 사관이 사평하다
1955. 선조실록 권151 선조 35년 6월 19일(기유) 【24집 390면】 470
간원에서 대혼례로 인해 당겨진 가을 향사 날짜를 바로 잡도록 간하다
1956. 선조실록 권151 선조 35년 6월 25일(을묘) 【24집 393면】 470
성균관에서 대성전을 증건하는 일 및 그 절차에 대해 아뢰다
1957. 선조실록 권151 선조 35년 6월 27일(정사) 【24집 393면】 471
왕비의 금보가 소중하니, 육례를 마친 후 하례시에 보안을
진설토록 하다
1958. 선조실록 권152 선조 35년 7월 2일(신유) 【24집 394면】 471
좌의정 김명원·호조판서 한응인에게 납채례를 거행토록 하다
1959. 선조실록 권152 선조 35년 7월 4일(계해) 【24집 395면】 471
간원의 건의로 임해군의 살인죄, 가례도감의 준비 미숙 등을
조사토록 하다
1960. 선조실록 권152 선조 35년 7월 12일(신미) 【24집 397면】 472
친영 준비로 길을 보수하다가 흠이 무너져 사상자가 발생하다
1961. 선조실록 권152 선조 35년 7월 13일(임신) 【24집 397면】 472
별전에서 왕비 책봉례를 거행하고 내린 교명문
1962. 선조실록 권152 선조 35년 7월 13일(임신) 【24집 397면】 473
태평관에서 왕비의 친영례를 거행하다
1963. 선조실록 권152 선조 35년 7월 15일(갑술) 【24집 398면】 474
간원의 건의로 태평관 수리시 서울 백성이 압사한 사건의 해당
관원을 파직하기로 하다

1964. 선조실록 권152 선조 35년 7월 18일(정축) 【24집 399면】 474
 사간원에서 이응표가 경강에서 사적으로 장사를 하는 등의
 사리사육에 대해 제기한 논죄가 거부되자 피혐하다
1965. 선조실록 권152 선조 35년 7월 21일(경진) 【24집 400면】 475
 성균관 대성전 준공에 이어 부속 건물의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다
1966. 선조실록 권153 선조 35년 8월 2일(신묘) 【24집 403면】 476
 성균진사 최극겸이 오현을 문묘에 종사할 것을 주청하다
1967. 선조실록 권153 선조 35년 8월 11일(경자) 【24집 404면】 477
 사헌부의 건의로 별시에서 소학의 고강 시행 문제를 검토하다
1968. 선조실록 권153 선조 35년 8월 12일(신축) 【24집 404면】 477
 사헌부에서 별시에서 등록 후 소학 시험을 치르도록 하다
1969. 선조실록 권153 선조 35년 8월 12일(신축) 【24집 404면】 478
 사간원에서 무분별한 무과 시험 및 훈련도감의 병력을 침탈하는
 문제 등에 관한 대책을 아뢰다
1970. 선조실록 권153 선조 35년 8월 16일(을사) 【24집 404면】 479
 동지사 일행이 무과 시험장을 말을 타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추고하기로 하다
1971. 선조실록 권153 선조 35년 8월 18일(정미) 【24집 405면】 480
 동지사가 왕에게 하직한 후 서울에서 하루를 묵고 가는 문제를
 논의하다
1972. 선조실록 권154 선조 35년 9월 8일(정묘) 【24집 407면】 481
 예조에서 문묘 작헌례에서 왕세자가 참여하는 의식에 대해
 논의하다
1973. 선조실록 권154 선조 35년 9월 8일(정묘) 【24집 407면】 482
 정원에서 문과의 시험관 선발 절차에 대해 아뢰다
1974. 선조실록 권154 선조 35년 9월 9일(무진) 【24집 408면】 482
 알성할 때 의식 절차 도구를 적절히 준비 못한 관리를
 조사·파직시키다

1975. 선조실록 권154 선조 35년 9월 12일(신미) 【24집 408면】 483
 충청감사 유근이 산골의 전세를 포로 납부하여 서울로의 운반
 부담을 경감시키자고 건의하다
1976. 선조실록 권154 선조 35년 9월 12일(신미) 【24집 408면】 484
 예조에서 종묘와 효경전에 쓸 악기의 규모·제도에 대한 논의결과를
 아뢰다
1977. 선조실록 권154 선조 35년 9월 13일(임신) 【24집 408면】 486
 정원군의 궁노가 행패를 부리고 하원군 부인이 욕을 당하다
1978. 선조실록 권154 선조 35년 9월 13일(임신) 【24집 408면】 487
 정원군 가노의 하원군 부인에 대한 행패와 그들의 처벌을 주청하다
1979. 선조실록 권154 선조 35년 9월 14일(계유) 【24집 409면】 488
 정원군의 일을 직접 조사하여 전말을 자세히 설명하다
1980. 선조실록 권154 선조 35년 9월 15일(갑술) 【24집 411면】 489
 물시계를 잘 관리하여 일정한 시각에 종을 칠 수 있도록 지시하다
1981. 선조실록 권154 선조 35년 9월 16일(을해) 【24집 411면】 489
 하원군 아들 익성군에게 가노들의 행패 사실을 자세히 파악하다
1982. 선조실록 권154 선조 35년 9월 30일(기축) 【24집 415면】 490
 군기시 공인들의 급료를 적정하게 주도록 하다
1983. 선조실록 권154 선조 35년 9월 30일(기축) 【24집 415면】 490
 사헌부의 건의로 청파역 일대의 명화적을 못 잡은 포도대장을
 조사하게 하다
1984. 선조실록 권155 선조 35년 10월 9일(정유) 【24집 418면】 491
 관상감에서 월식 시점을 보고하고 구식 의례를 건의하다
1985. 선조실록 권155 선조 35년 10월 19일(정미) 【24집 420면】 491
 사간원에서 과거 응시 금지 폐단의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건의하다
1986. 선조실록 권155 선조 35년 10월 20일(무신) 【24집 421면】 492
 한성부에서 정원군 등 궁가들의 불법·비리를 시정토록 주청하다

-
1987. 선조실록 권155 선조 35년 10월 22일(경술) 【24집 421면】 493
창방을 권정례로 행하다
1988. 선조실록 권155 선조 35년 10월 25일(계축) 【24집 421면】 493
예조의 건의로 정월과 동지·탄일 등의 하례를 법전의 규정대로
준수하기로 하다
1989. 선조실록 권156 선조 35년 11월 13일(경오) 【24집 426면】 494
문사낭청과 부친살해 혐의를 받은 윤녀의 옥사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하다
1990. 선조실록 권157 선조 35년 12월 2일(기축) 【24집 432면】 495
사헌부 건의로 재판 업무에 우려가 있는 한성부판관을 체차하기로
하다
1991. 선조실록 권157 선조 35년 12월 27일(갑인) 【24집 435면】 496
강상죄에 연루된 윤덕경의 옥사에 대한 대신들의 논의